

## ‘장애인 콜택시’ 승차 전쟁 해소책 시급

턱없이 부족한 법정대수에 이마저 충족 못해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한 수요 폭증 대비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차량확보 대수로 장애인들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증액과 국

가 차원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22개 시·군 중 19곳이 법정대수 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차량확보가 미진한 상태다.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자체의 소관으로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지

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서 승하차와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 중 대부분의 승객은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으로 이들의 이동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절대적인 공급의 부족과 예측 불가능한 대기소요 시간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대수 기준은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 1, 2등급 장애인 수

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200명당 한 대로 배정이 되는데, 이 기준은 지금의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하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경우 이동수단의 선택권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결국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최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났다. 6단계로 구분되던 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바뀌어 이전에는 1급과 2급 장애인만 이용 가능했던 콜택시가 이제는 3급까지 포함된 ‘중증장애인’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급격히 증가한 수요에 맞추어 운행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연 문제는 더욱 심화 될 것이다.



**통일농사 지원하며 벼베기** 22일 오전 광주 서구 용두동 한 들녘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번영을 지원하며 벼베기를 하고 있다.

콜택시를 가끔 이용한다는 한 장애인인 “자주 이용하고 싶지만 생각하면 짜증부터 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동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다 더 많은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장애인인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 이용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 휠체어의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라며 “특히 비나 눈이 오는 상황이면 길거리는 더욱 위험해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전국 161개 특별·광역시 및 시군 중 80개는 명시된 기준 대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봉우 기자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확정된 완도수목원 전경.

##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 전남 완도·경남 거제 2곳 확정

완도군과 경남 거제시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전남 전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신청한 완도군 지역에 대해 산림청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현장평가 결과 ‘적격’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은 완도 대상지에 대해 ‘2020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완도군과 함께 경남 거제시 또한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 평가(70%)와 서류·발

표평가(30%) 결과 2곳 모두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 난대수목원은 200~500ha 규모에 1500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완도수목원에는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780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연중 14도 이상으로 난대수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수목원이 보유한 국내 최대 난대림과 완도군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연계,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구례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첫 시행...7500만원 투입

최소 200만원~최대 350만원 지원  
구례군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전기이륜차 30대 물량인 예산 7500만원을 투입해 전기이

륜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구례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이나 구례군에 사업장(본

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판매점은 제출받은 서류를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 내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

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는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차종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 신안군, 겨울철 별미 ‘물김’ 첫 위판

120kg 1망기준 평균 23만원  
신안군은 겨울철 해조류 별미인 물김이 17일을 시작으로 신안수협 송공 물김 선상 위판장에서 첫 물김 위판을 가졌다.  
금번 물김 첫 위판가격은 물김 120kg 1망기준 평균 23만원으로 이중 최고가는 35만원에 위판되었으며, 작년대비 10%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김 출하어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2020년산 첫 물김은 신안군 압

해읍 송공리 김양식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 잇바디물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 하여 일명 ‘곱창김’이라 불린다.  
잇바디물김은 만생종인 일반 물김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14년에 지주식 ‘신안 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와 단체표장을 등록하고 명품브랜드화에 전격하고 있다.

## 2019 청정완도

# 가을빛여행

**2019. 10. 25(금) - 27(일) 3일간**  
**완도해변공원 / 완도타워 / 완도수목원 / 청산도 일원**  
 주최·주관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